B21

투석시작당시부터 간경화증이 동반되었던 말기신부전환자에서 투석요법에 따른 생존율비교

송경일, 이승헌[1], 김순배[2], 양동호[3], 박민선[3], 이희발[3]
아산재단 강릉병원 내과, 가톨릭의대 내과[1], 울산의대 내과[2], 순천향의대 내과[3]

간경화증과 말기신부전이 동반된 많은 환자가 투석을 받고 있으나 어느 투석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. 이에 본 연구자들은 투석시작당시부터 간경화증이 동반되었던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투석요법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3개월이상 같은 종류의 투석을 받은 39명을 대상으로 다기관,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. 혈액투석은 22명(19:3), 복막투석은 17명(남:여 15:2)에서 시행되었다. 환자의 평균나이와 투석기간은 혈액투석군에서 48±2(S.D.)세 및 18±4개월, 복막투석군이 44±3세 및 35±4개월이었다. 말기신부전의 흔한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(44%)과 당뇨병(28%: 혈액투석 9, 복막투석 2)이었고, 간경화의 가장 흔한 원인은 B 바이러스 감염이었다(92%). 추적관찰 중 16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간부전이었다(56%). 간세포암은 4명에서 동반되었다. Cox-proportional hazards model로 분석한 결과 Child's classification의 점수의 합(RR=2.77, P=0.0003)과 동반된 당뇨병(RR=5.63, P=0.02)이 환자의 생존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, 투석의 방법(P=0.12 with HD as reference), 나이, 성별, 입원일수, 혈청 알부민, 크레아티닌 및 콜레스테롤 등은 차이가 없었다. 보정되지 않은 1년과 3년째의 전체적인 생존율은 혈액투석군에서 72와 47%, 복막투석군에서 94%와 61%이었다. 동반된 위험인자로 보정된 1년과 3년째의 생존율은 혈액투석군에서 98와 88%, 복막투석군에서 96%와 37%이었다. 혈액투석군과 복막투석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결론적으로, Child's classification의 점수의 합과 동반된 당뇨병이 투석시작당시부터 간경화증이 동반되었던 말기신부전환자에서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. 투석의 방법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.

B22

투석 및 신이식 환자에서 만성 C형 간염의 Interferon-alpha의 치료효과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
김영욱*, 양철우, 김용수, 박영민, 방병기

만성 C형간염은 투석을 받고있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중요한 합병증으로 신이식에 장애 요인이 되며, 신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사용으로 간염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. Interferon-alpha (IFN)는 만성 C형간염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나 신이식 환자에서의 효과는 잘 밝혀져 있지 않다. 이에 연자들은 HCV RNA 양성이고 6개월이상 SGOT 및 SGPT치가 증가되어 있는 만성 C형간염 환자인 투석 환자 3명과 신기능이 안정되어 있는 신이식 환자 2명(치료전 혈청 크레아티닌치 각각 1.4, 2.0mg/dl)을 대상으로 6개월간 (한환자는 3개월째 투여중임) IFN 300만 단위를 주 3회 피하주사하고 간기능 호전 및 HCV RNA의 seroconversion 유무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나이/성	신대체요법 (기간)	HCV RNA SGOT/SGPT (IU/L)			
		치료전	치료후 1개월	3개월	6개월
57/남	PD(7개월)	+ 58/56	+ 60/90	- 31/38	
37/남	PD(16개월)	+ 135/105	- 36/21	- 24/20	- 21/16
55/남	HD(55개월)	+ 89/151	- 22/41	- 12/19	- 15/19
28/남	KT(93개월)	+ 119/266	- 20/26	- 13/11	- 4/9
59/남	KT(142개월)	+ 101/196	- 59/109	- 64/98	- 24/21

치료 초기에 3명에서 발열이 있었으며, 신이식 환자에서 치료 중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상승하였으나(1.4 mg/dl에서 1.6 mg/dl, 2.0 mg/dl에서 2.4 mg/dl) 치료 종결후 안정되었다. 이상의 결과에서 만성 C형간염이 동반된 만성신부전 환자 및 신이식환자에서 IFN 치료후 모든 환자에서 간기능 호전과 HCV RNA의 seronegative conversion 을 보였으며 IFN의 심한 부작용은 없었다.